

◎청일전쟁후

- :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조선 정치에 더 깊이 간섭함
- 일제: 일본 ()을 줄인 말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()한 일본을 일컫음
 - 고종과 명성 황후는 일본을 막기 위해 ()세력을 끌어들이
 - 당시 명성 황후는 고종의 () 정책 제안자이며 정치적 ()자 역할을 함



◎을미사변(1895)

- : 일본은 ()에 침입해 명성 황후를 ()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름
- 시해 장소: 경복궁 건청궁 ()
 - 명성 황후 국장: 1897년



◎아관파천(1896-1897)

- : 고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 ()공사관으로 피함
→ 일본 대신 () 영향력이 커짐



◎독립협회(1896)

- : 서양 나라들의 간섭이 심해져 조선이 ()국임을 알리고 백성들을 ()시킬 필요가 생김
- 독립문: 청 사신을 맞이하던 ()이 있던 자리에 세움
 - 독립신문: ()이 창간해 나라 안팎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림. 자주독립 강조
 - 독립(): 정부 관료와 개화파 인사들 참여
 - ()공동회: 정부의 정책과 사회 제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비판

